취리히 공항의 새로운 소식.

유럽 최고의 공항답게 장애인에게도 친절한 공항

새로운 터미널 오픈. 대한항공도 새 터미널 이용
손 좀 펼쳐 보세요. 무작위 폭발 잔여물 검사하니 당황하지 마세요.
스위스 프리미엄 수제 초컬릿 부띠끄 오픈

1. 12 년 연속 유럽 최고의 공항

취리히 공항이 '여행 업계의 오스카' 상이라 불리는 월드 트래블 어워드(World Travel Award)에서 2015 년에도 유럽 최고의 공항에 뽑히며 12 년간 변함없는 위상을 지켰다. 유럽 공항 부문에서 취리히 공항은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런던, 파리 등 8 개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고객에게 얼마나 친절한지, 서비스의 수준은 얼만큼 높은지, 일반적인 수준은 어떤지 등이 평가되었다. 올 해의 트로피는 취리히 공항의 에어사이드 센터(Airside Center)의 캐비넷에 전시될 예정이다.

2. 친 시각 장애인 공항으로 선정

스위스 시각 장애인 협회(SBV)는 취리히 공항을 친 시각 장애인 공항으로 선정하고, 그 상징의 의미로 하얀 지팡이를 수여했다. 이는 2015 년 10 월 15 일, 국제 시각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며 이루어진 행사로, 시각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하는데 기여한 취리히 공항과 관계자들에게 의미있는 시상이 되었다. 공항 측은 취리히 주 장애인 컨퍼런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항 직원들을 교육하고, 장애인들의 니즈를 보다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장치를 통해 시각 장애인들이 취리히 공항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새롭게 오픈하는 터미널 2

2015 년 10 월 28 일, 취리히 공항에 2 번 터미널이 새롭게 오픈한다. 2010 년에 착수된 이번 레노베이션을 통해 더 넓은 공간과 깔끔한 단장을 갖추고 104 개의 새로운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롭게 단장한 워크웨이를 통해 터미널 2 에 입장할 수 있게 되는데, 상행 평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체크인 2 홀에 도착할 수 있다. 혹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도착 2 로 향할 수도 있다.

노출 천장 디자인으로 조명 효과를 높혔고, 새로운 카운터 배치와 공간 활용을 통해 과거보다 16 개의 카운터를 더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시각적인 쾌적함 뿐만 아니라 승객 위주의 편의를 위해 설계된 공간이 탄생했다.

터미널 2 공사로 인해 임시 공간을 이용하던 항공사들의 위치도 변경된다. 대한항공 역시 터미널 2 에 있는 체크인 2 를 이용하게 되며, 스타 얼라이언스(Star Alliance)에 포함되지 않은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터미널 2 를 이용하게 된다.

터미널 2 업그레이드 공사는 터미널 2 오픈 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2016 년 말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4. 새로운 무작위 보안 검사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2015 년 9 월 1 일부터 취리히 공항은 승객들과 가지고 있는 짐에 대해 무작위로 폭발물 잔류 검사를 시행한다. 유럽 연합에서 시행되고 있는 확인 절차를 취리히 공항에서도 도입하는 차원으로, 폭발물 잔류 검사기로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승객의 손과 손목 등에 살짝 닦아 내는 정도로, 무작위 선별 과정을 거쳐 검사 대상 승객을 결정하게 된다. 본 검사는 건강상 전혀 위험이 없으며, 몇 초후면 결과가 나타나므로, 전체적인 보안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을 것이다. 현재 이미 진행되고 있는 승객 및 수하물 대상 금지 품목 및 액체류에 대한 규정 역시 계속 진행된다.

5. 스위스 프리미엄 수제 초컬릿, 래더라흐(Läderach) 부띠끄 숍 오픈

체크인 1 구역이 더욱 달콤해질 전망이다. 2015 년 10 월 29 일, 스위스 프리미엄 수제 초컬릿의 대명사, 래더라흐가 취리히 공항에 그 첫 번째 초컬릿 부띠끄 숍을 연다.

래더라흐 오픈에 무엇보다 취리히 공항 직원들이 더 기뻐했다는 후문이 들리는 것은, 글라루스(Glarus) 지역에서 탄생한 래더라흐가 스위스 사람들에게 얼마나 환영받는 맛인지 짐작케 한다.

특히 래더라흐의 슬로건인 "코코아 빈부터 숍 카운터까지"처럼 수 많은 맛과 제품을 통해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모두 직접 손으로 빚어낸 프리미엄 초컬릿과 제과류로, 20 종류가 넘는 프레쉬 초컬릿을 원하는 사이즈에 맞게 즉석에서 부러뜨려 살 수 있는 재미도 있다. 선물용으로 제격인 프랄린과 트러플 초컬릿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특히, 사르르 녹아 내리는 필링을 채우고, 가볍고 폭신한 흰자 거품으로 초컬릿을 감싼 "미니 마우스(Mini Mousses)"가 히트다.

매일 오전 6 시부터 오후 9 시까지 오픈한다.

유럽 최고의 공항으로 꼽히는 취리히 공항, 200% 활용하기.

공항에서 놀아보기

활주로 한복판에서 이륙하는 비행기 구경
전망대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 관람
아이랑 동행하세요? 놀이방에는 장난감이 가득. 수유 및 이유식도 편리
샤워만도, 3 시간 간이 침대 사용도 가능한 데이룸
공항내 맛집과 숍, 무료 와이파이까지

오랫동안 "유럽을 선도하는 공항(Europe's Leading Airport)"으로 선정되고 있는 취리히 공항은 매년 24,800,000 명의 승객과 270,000 대의 항공기가 이용하는 공항이다. 유럽 내에서도 중요한 환승 공항으로 자리잡아 이용자의 32.9%가 환승 고객이다. 유럽의 관문으로 64 개의 국가를 연결하는 효율적인 환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승객뿐 아니라, 화물 또한 연간 7 십만 톤을 다룰 수 있어 유럽에서 가장 큰 화물 공항으로도 손꼽힌다. 이런 취리히 공항은 공항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혁신적인 단행을 하는 것은 물론, 공항 이용자들의 편리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를 펼쳐나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공항에서의 환승시는 물론, 출도착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는데, 그 중 한국인 여행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해볼만한 서비스를 소개한다.

1. 공항 투어 이용하여 취리히 공항 속속들이 구경하기.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취리히 공항은 일반인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공항 투어(Sightseeing Tour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항투어에서는 버스를 타고 활주로 중앙까지 이동해, 드넓은 벌판에서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모습을 가까이 볼 수 있어 더욱 인기다.

가이드 투어는 Dock A 구간과 면세 구역인, 에어사이드 센터(Airside Center)를 비롯하여 활주로 28 번과 Dock D 구간을 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활주로 외에도 자연보호구역도 견학할 수 있다. 특히 자연보호구역에서는 자연과 기술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또 다른 하이라이트로는 항공 구조 서비스인 "레가(Rega)"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과, 화물 구역, 격납고, 정비구역, 응급 서비스 및 활주로 교차로 구경 등이 있다. 전체 투어는 약 1 시간 15 분 정도 소요된다.

매년 3 월 하순부터 10 월 하순까지 운영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11 시부터 오후 5 시까지 매 30 분마다, 수요일에는 낮 12 시부터 16 시 30 분까지 매 1 시간 간격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성인 CHF 8, 만 6 세에서 16 세 아동 CHF 4 이다. 티켓은 이착륙 전망대(Observation deck)에서 구입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6 주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하며, 20 명까지는 CHF 200, 45 명까지는 CHF 400 이다.

2. 이착륙 전망대.

2011 년 12 월 1 일 새로 오픈한 이착륙 전망대(Observation deck)도 인기다. 비행기 활주로를 가까이 관찰할 수 있는 이착륙 전망대는 쉥엔 조약에 따라 입국 및 환승 절차를 효율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해 새로 지은 Dock B 동에 위치해 있다. 체크인(Check-in) 2 라운지 옆으로 가면 된다. 전망대는 겨울에는 오전 9 시부터 오전 6 시까지, 여름에는 오전 8 시부터 오후 8 시까지 운영되며, 입장료는 성인 CHF 5 이다.

3. 취리히 공항의 가족 여행자들을 위한 서비스.

취리히 공항은 어린이들을 동행한 공항 이용자들에게 환영을 받을만한 패밀리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게이트 근처에 위치한 어린이 놀이방과 탁아소 등은 가족 단위 여행자라면 놓치지 말아야할 서비스다.

무료 놀이방 운영.

취리히는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보육 담당자가 상주하고 있는 놀이방과 탁아소를 운영하고 있다. 비행기가 출발하는 게이트 A 구역과 E 구역에 위치해 있다. 단, 아이 돌봄 서비스는 지원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봐야 한다. 항공사와 관계 없이 보딩 패스를 소유하고 있는 승객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놀이방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은 전문 보육 교사이자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있다. 놀이방 내에 항공 정보가 제공되어 남는 시간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아이가 소소하게 다쳤을 때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의료진 요청을 도와주기도 한다.

장난감 천국.

놀이방에는 모든 연령의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장난감을 갖추고, 다양한 액티비티를 운영하고 있어, 널찍하고 밝은 분위기의 놀이방에서 신나게 놀이를 즐길 수 있다. 인형 및 인형 유모차, 천으로된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장난감, 요정이 나오는 그림책, 컴퓨터 게임, 플레이 스테이션, 축구 게임, 그림 그리기 도구, 블럭 등 다양한 장난감이 마련되어 있다.

아기가 있는 승객을 위한 서비스.
아기를 동반한 승객일 경우, 기저귀를 갈 수 있는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고, 아기 용품이 마련되어 있으며, 조용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수유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하기 좋다. 또한 전자렌지와 요리용 가열기구, 식기 등이 마련되어 있는 작은 주방이 설치되어 있어 이유식이나 우유를 데워 주기에 제격이다. 다양한 종류의 아기 용품을 구매할 수도 있어 편리하다.

위치.
패밀리 서비스(Family Service)는 아기 및 장난감, 우유병 모양의 사인을 따라가면 되는데, 공항 내 두 곳에 위치해 있다. 하나는 게이트 60-69 입구 옆에 있는 환승 데스크(Transfer Desk) 근처의 Transit A 구간에 위치해 있으며, 다른 하나는 Dock E 3 층, 게이트 E45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운영시간.
매일
Transit A 구간: 오전 6 시 30 분부터 밤 10 시까지
Dock E 구간: 오전 6 시 30 분부터 오후 1 시까지

4. 트랜짓 호텔(Transit Hotel) : 데이룸(Dayrooms).

데이룸(Dayrooms)에서는 환승고객들을 위해 싱글룸이나 더블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간이 침대와 간이 벽을 만들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다. 샤워 시설을 비롯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데이룸은 주간 요금과 야간 요금을 별도로 책정하고 있다. 주간 요금은 다음과 같다.
싱글룸은 3 시간까지는 CHF 45, 6 시간까지는 CHF 59, 6 시간 이상 사용시 CHC 75 이다.
더블룸은 3 시간까지는 CHF 59, 6 시간까지는 CHF 79, 6 시간 이상 사용시 CHC 99 이다.
간이 침대 이용시, 3 시간까지는 CHF 20, 6 시간까지는 CHF 25, 6 시간 이상 사용시 CHC 30 이다.

야간 요금의 경우, 싱글룸은 CHF 94, 더블룸은 CHF 128 이다.
샤워 시설만 이용할 경우, CHF 15 이다.

5. 스모킹 라운지.

취리히에 있는 스모킹 라운지는 공항내 흡연 시설로는 선구자적인 것으로, 청결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흡연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6. 쇼핑.

취리히 공항에는 스위스를 대표하는 수퍼마켓인 코옵(Coop)과 미그로(Migro)와 기념품 상점 외에도, H&M, Mango, LACOSTE, SWATCH 등의 패션 매장이 면세구역 밖에 입점해 있다. 면세 구역 내에는 BALLY, BVLGARI, BURBERRY, GUCCI, Hermès, Tiffany & Co., OMEGA 등 명품숍이 즐비하다. 특히 티파니와 오메가 숍은 이례적으로 면세 구역에 입점한 사례라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매번 이루어지는 공항 이용자 설문 조사에서 나타난대로 H&M 을 입점 시킨 것도 재미있는 부분이다. 티파니와 오메가가 이례적으로 공항 면세 구역에 입점하기도 하는 등, 취리히 공항은 그 매력을 더해가고 있다.

스위스를 대표하는 숍.
도착지 면세점과 다양한 패밀리 서비스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단행하고 있는 취리히 공항이 면세 구역에 새로운 숍을 오픈하며 더욱 스위스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특히 이번에 론칭하는 숍들은 스위스 고유의 브랜드들이라는 점에서 취리히 공항에서 출국 및 환승을 하는 경우, '스위스다운'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들 숍은 보안 검색대를 지나자마자 등장하는데, 기존의 다양한 숍들 외에 다음 브랜드가 추가로 입점하였다.

라프레리(La Prairie).
국내에도 잘 알려진 안티 에이징 제품으로 스위스다운 품질을 보장한다. 처음으로 공항에 부띠끄 형식으로 입점한 라프레리에서 전 라인을 쇼핑할 수 있다.

IWC.
140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스위스 시계 공학 브랜드로, 파일럿 시계로 유명하다. 일반적인 IWC 컬렉션은 물론, 리미티드 에디션까지 쇼핑할 수 있다.

그리더(Grieder).
도시적인 남성 비즈니켓스 및 레져 웨어를 선보이는 그리더에서 몽클레르(Moncler), 볼리올리(Boglioli), 해켓(Hackett)을 비롯한 다양한 브랜드를 쇼핑할 수 있다.

캐비어 하우스 앤 프루니에(Caviar House & Prunier).
고급 식료품 전문숍으로, 프루니에 캐비어(Prunier caviar)와 발리크(Balik) 훈제 연어를 비롯하여 스위스에서 가공된 품질 좋은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다.

슈프륑글리 카페 및 라운지(Sprüngli Café & Lounge).
취리히 파라데플라츠(Paradeplatz) 광장에 위치해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슈프륑글리 레스토랑이 취리히 공항에도 마침내 그 문을 열었다. 레스토랑 옆의 숍에서는 슈프륑글리의 시그니처 마카롱인 룩셈부르겔리(Luxemburgerli)를 종류별로 구입할 수 있고, 다양한 초컬릿도 쇼핑할 수 있다.

7. 맛집
취리히 공항은 쇼핑과 식당 공간을 새롭게 단장하기도 했다. 아시아 메뉴부터 스위스를 대표하는 뫼벤픽(Mövenpick)의 마르쉐(Marché) 레스토랑까지 쾌적하고 맛깔난 공간을 창조해 냈다.

발터(Walter)
취리히 공항에 새로운 지중해식 레스토랑이 오픈했다. 발터(Walter)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은 에어사이드 센터(Airside Center)에 위치해 있어, 항공편을 기다리면서 식사를 즐기기 좋다. 공항 내 자리한

식당다운 아이디어도 돋보인다. 메뉴판에는 서둘러야 하시나요(In a hurry)?라고 물으며 분단위의 메뉴를 제시한다. 6 분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셀프서비스로 뷔페에서 음식을 가져다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있고, 10 분 메뉴에는 포카치아 빵에 그릴한 야채와 치즈 혹은 토마토와 모쩨렐라 및 바질을 얹은 메뉴가 있다. 15 분 메뉴에는 비프 라구, 버섯, 바질 페스토 등의 파스타가 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경우, 풍성한 아침식사부터 간단한 페이스트리, 콜드컷과 치즈, 매일 직접 손으로 뽑아내는 면을 이용한 다채로운 파스타 메뉴, 디저트 메뉴, 커피를 비롯한 음료와 다양한 맥주, 길다란 와인 메뉴가 있다. 뷔페 코너에는 다채로운 베지테리언 스페셜 메뉴가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 스타일리쉬한 바 위에 자리한 플라잉 와인 캐비넷에 수납된 다양한 와인 셀렉션이 인상적이다.

취리히 공항에서 즐기는 스위스산 치즈 버거.
취리히에서 귀국길에 오른다면 마지막 스위스 정찬을 공항 어퍼데크(Upper Deck) 레스토랑에서 즐겨보자. 특히 최고급 재료를 사용해 직화로 구워 만든 버거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직화로 그릴한 소고기 패티에는 풍부한 육즙과 향미가 그윽하다. 공항 위층에 자리한 레스토랑에서는 다양한 메뉴의 미식 버거를 선보이고 있는데, 특히 크리스피하게 구워낸 베이컨과 라클렛 치즈를 넣어 만든 스위스 라클렛 버거(Swiss Raclette Burger)와 100% 스위스산 소고기와 그릴한 새우를 넣어 만든 버바 검프 버거(Bubba Gump Burger)가 인기다. 밥과 야채, 허브를 토스트한 번과 함께 제공하는 베지 버거(Veggie Burger)에는 옥수수 구이가 따라 나온다. 스페셜 원(Special One)이라 이름붙인 버거에는 와규 소고기로 만든 패티에 바삭한 웨지 감자가 따라 나온다.

식사 후에는 라즈베리와 마스카포네 치즈, 비스킷으로 만든 홈메이드 라즈베리 트리플(Raspberry trifle)로 달콤한 디저트를 즐길 수 있다.

8. 무료 와이파이

2013 년부터 취리히 공항에서는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항내 어느 구역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는 매 6 시간마다 최대 60 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은 WIFI 를 이용하거나 공항내에 마련된 인터넷 스테이션을 이용하면 된다.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 WLAN 네트워크에서 “ZurichAirport”를 선택한다.
- 자동으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된다.
- “Not yet registered?”를 선택한다.
- 핸드폰 번호를 입력한뒤 전송한다. 한국 핸드폰 번호라면 0082 로 시작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단, 첫 0 은 제외한다. 예) 010-123-1234 라면 0082-10-123-1234
- 등록한 핸드폰 번호의 문자로 코드가 전송된다.
- 전송된 코드를 입력한 뒤, “Login”을 클릭한다. (해당 코드는 6 개월 동안 저장된다)

60 분 이후의 추가 이용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할 수 있다.
1 시간은 CHF 6.90, 4 시간은 CHF 9.90, 24 시간은 CHF 14.90 이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취리히 공항에는 탑승 구간은 물론 일반 구간에도 인터넷 스테이션이 설치되어 있어 공항 이용자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 곳에서도 인터넷 이용은 최초 60 분까지만 무료이다.

취리히 공항: www.zurich-airport.com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